

'항기 나는 이불' 미국 침구 시장 진출

나비스, 15만불 컨테이너 선적

유럽·중국 수출은 내년 1월초

침구류 전문 제조사인 (주)나비스(대표 소대성)는 중국제품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 침구류 시장에 수출을 시작하는 쾌거를 일궈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 조한교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장, 이광일 전북KOTRA지원단장은 수출 첫걸음에 성공한 (주)나비스를 축하, 격려하기 위해 방문했다.

(주)나비스는 2015년도에 중소기업청의 혁신형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선정, 2년간의 사업기간 동안 4억 4,000여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 세계 최초로 알레르기 방지와 방충, 숙면 효과가 탁월한 '항기 나는 이불'을 개발했다.

또한, 최근에는 '항기를 댔다'는 슬로건 아래 '항기이불·아로마슬립' 브랜드를 공식 런칭, 유럽·미국, 미국, 캐나다, 로즈마리, 바질, 라벤다, 치차,

자스민, 로즈, 사향 등 아홉 가지의 향기를 가진 이불을 생산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수출성공패키지 및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과 KOTRA(코트라)의 수출 첫걸음 사업에 선정되는 등 지난 1년동안 전북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코트라의 도움을 받아 해외시장진출 및 국내 바이어 상담회 등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면서 자사의 항기이불을 적극 홍보하여 마침내 미국, 유럽, 중국 등으로 수출이 성사되는 성과를 이뤘다.

미국 첫 수출은 12월 19일 40피트 컨테이너를 시작, 약 15만불의 선적을 완료했고 유럽(스위스), 중국 수출은 내년 1월초에 제품이 선적될 예정이다. 특히, 전 세계 침구류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 첫 진출을 시작으로 중국시장 수출을 확대할 예정으로 업체는 2019년도 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 조한교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장, 이광일 전북KOTRA지원단장이 미국 수출 첫걸음에 성공한 나비스를 방문했다.

출실적 200만불 달성을 목표로 해외 마케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광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조한교 중소기업진흥공단전북본부장, 이광일 전북KOTRA지원단장은 "전북 지역내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세기관의 수출역량을 결집하여 지원하기로 다짐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조남룡 주무관(063-210-6482)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소비자 보호를 넘어 소비자 중심경영으로"

농협은행 전북본부, 지역금융 활성화 경영 전략 회의 가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지역금융을 활성화 하고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위한 경영전략회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의는 2018년 금융 사업에 대한 총괄평가보고로 시작으로 2018년 한해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어려운 이웃들을 안아주고 풀어주는 따뜻한 은행'을 추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부담 해소를 위해 5,100여억원 이상을 지원했다.

2019년 3대 중점 추진 사항인 '소비자 중심경영, 포용적 금융, 중소기업과 농업인을 위한 자금지원'과 2019년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가졌다.

먼저, 2019년 중점 과제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꺼냈으며 농협은행은 2016년 은행권 최초 인증 이후 2회연

속소비자중심경영(CCM)자격을 취득했다.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포용적 금융'에 적극 동참해 금융취약계층의 자금 애로와 금융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서민금융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NH농협은행전북본부는 "농가소득 5,000여만원 달성을 위해 농업관련자금에 3,000여억원 이상을 지원했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5,000여억원 이상의 여신지원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장근 NH농협은행전북본부장은 "소비자 보호를 넘어서 소비자 중심경영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한다"며, "NH농협은행 임직원들은 2019년에도 고객과 도민에게 사랑받는 은행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올해 3분기 구인·채용인원 소폭 증가... 고용여건 다소 개선

300인 미만 0.3%·300인 이상 19.1% 증가 '대기업 위주'

올해 3분기(7~9월) 국내 기업들의 구인 규모와 채용 규모가 동시에 증가했다. 감소세를 나타내던 지난 1분기(1~3월)에 비해 고용상황이 다소 개선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구인·채용 인원을 1년에 두 번(1분기·3분기) 조사한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기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상용직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구인 인원은 74만8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

간 72만1000명보다 3.7%(2만7000명) 증가했다. 3분기 실제로 채용한 인원은 66만4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63만6000명보다 4.4%(2만8000명) 증가했다. 지난 1분기에 구인 인원과 채용 인원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해 고용시장이 악화된 것과 비교하면 3분기에는 고용시장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 규모 별로는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의 구인 인원은 59만2000명(전체의 79.1%)으로 전년동기대비 0.3%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15만6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9.1% 증가했다.

실제 채용한 인원도 300인 미만 사업체는 51만5000명(전체의 77.6%)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증가했고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는 14만 9000명으로 19.8% 증가했다.

대체로 대기업에서 구인·채용 인원을 늘리면서 3분기 고용시장 여건이 개선된 셈이다. 직종별로 살펴보면(채용인원 기준) 경영·회계·사무 관련직(8만6000명),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6만9000명), 건설 관련직(6만7000명), 영업 및

판매 관련직(6만명)순으로 많았다.

올해 3분기 사업체의 적극적인 구인에도 충원하지 못한 인력을 의미하는 '미충원 인원'은 8만3000명으로 작년 동기(8만15000명)보다 1.5% 줄었다. 구인 인원 대비 미충원 인원의 비율인 '미충원율'은 11.2%로, 전년 동기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 김재훈 서기관은 "구인·채용 인원이 늘어 고용 여건이 조금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미충원 인원이 감소하면서 미스매치가 조금 해소 됐다"고 설명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개발공사, 가족사랑 독서 감상문 대회 펼쳐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자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거주 자녀들의 독후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족사랑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자 '가족사랑 독서 감상문대회'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독서 감상문대회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1~2학년 16여개 작품, 3~4학년 21여개 작품, 5~6학년 15여개 작품 등 총52여개 작품이 응모됐다. 응모작은 1차 모방성 심사를 거쳐 현지 국어교사, 문인협회 관계자가

'구성화 전개, 느낀 점, 바른문장 사용, 원고지 사용법' 분야로 나눠 2차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확정했다.

혁신에코코리3단지 아파트 김*은(초등 4년)의 '도둑님 발자국'이 영예의 대상에 선정, 익산배산에코리 아파트 양*우(초등6년)의 '빨 굵은 아빠와 불량 아들' 등 3건이 학년별 장원에 선정됐다. 그 밖에는 준장원, 우수상 등 다양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 임대주택 입주인 자녀의 꿈과 희망을 응원했다. /김영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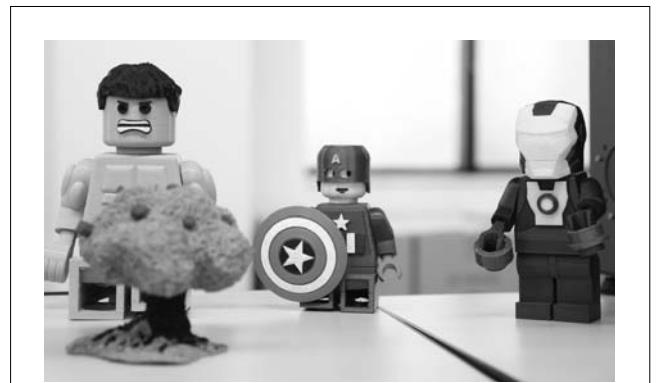
전북농협, '스쿨팜 관찰일지' 우수학생에 시상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전주, 익산, 군산에서 진행된 스톨팜에 참여해 학교별 체험학습 우수 학생 1명씩을 추천받아 우수한 관찰일지를 작성한 학생 38명(도지사상 3명, 교육감상 3명, 본부장상 3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19일에는 2018 스톨팜 관찰일지 최우수 작성 학생인 전주문화초등학교(교장 송재현) 5학년 인자은 학생을 깜짝 방문해 시상식을 진행했다. 최우수 작성 관찰일지에는 지난

8개월간의 가지, 무, 배추, 시금치 등을 직접 길러보며 생개게 된 대한민국의 농부에 대한 고마움과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이 담겨 있었다.

유재도 전북농협본부장은 "스쿨팜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농업에 호기심을 가지고 꼼꼼히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길 바란다"며, "학생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 농협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청소년 위한 미래 비전 프로그램'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3D 프린터 전달식 가져

JB 금융그룹(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전북은행 본점 연구원에서 전주서신중학교, 전주근영중학교, 완산중학교, 이리동중학교, 군산영광중학교에 3D 프린터 전달식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사업은 4차 산업 혁명시대 핵심 기술인 3D 프린팅 활용을 통한 도내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해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 프린터를 지원하고 군산대산학협력단이 교육을 지원하는 미래 비전 프로그램이다.

전달식에는 김영구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구성희 군산대학교산학협력단교수, 3D 프린터 지원 받는 각 학교 담당 교

사와 학생 20여명이 참석했다. 구성희 교수의 3D 프린터 기기 사용법, 모델링 교육과 프린팅 현장 시연을 통해 참여한 교사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산단에서는 각 학교 방문교육과 도내 3D 프린터 담당 교사들의 집합연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김영구 이사장은 "청소년을 위한 미래 비전 프로그램인 3D 프린터 지원사업은 향후 5년간 도내 학교에 지원될 예정이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의적 인재가 양성되길 바란다"며, "장학문화재단에서는 청소년, 도민을 위한 사회공헌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으로 따뜻한 관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영태 기자

적십자회비 참여는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이 됩니다.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 2018.12.1 ~ 2019.1.31 (연중모금)

지금 바로 참여해 주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QR코드

편의점

신용카드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

2018년 적십자회비, 이렇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약 14억2천만원

재난 구호 활동
약 1억3천만원

안전 지식 보급
약 6억3천만원

*정기후원 및 단체 기부금 지원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원문의 063)280-5821~2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